

2024 년도 ‘니조성 장벽화 전시수장관’ 원화 공개 내용 시리즈 니조 별궁의 시대

	공개 기간	공개 내용	공개 작품
봄 기간	4 월 25 일(목)~ 6 월 23 일(일) [60 일간]	니조 별궁의 대형실 ~<대형실> 제 1 실~ 1884 년(메이지 17 년) 니조성은 황실의 별저인 니조 별궁이 되어 니노마루 궁전을 수리했습니다. 또한, 메이지 30 년대에 복도 등의 장벽화가 새로 그려졌습니다. 다이쇼 천황의 황태자 시절 <대형실>은 알현의 장소가 된 적이 있어 제 1 실에 황태자가 앉았다고 생각됩니다. 메이지 시대의 새로운 숨결을 느끼게 하는 복도를 지나 들어선 <대형실> 제 1 실은 에도시대의 중후함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. 황태자가 앉았다고 생각되는 <대형실> 제 1 실의 장벽화를 공개합니다.	<대형실> 제 1 실 장벽화 《송죽금계도》, 《화훼도》, 《수선도》
여름 기간	7 월 18 일(목)~ 9 월 15 일(일) [60 일간]	장벽화 재생 ~가신 대기실~ 가신 대기실은 무사 대기소에 기다리던 귀족이 <대형실>에서 쇼군을 알현하기 위해 고위직에게 대면을 요청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. 벽면에는 크고 작은 소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. 한편, 가신 대기실과 복도의 경계에 끼워져 있는 징두리 널이 있는 장지에 붙인 다양한 화조도는 니조성이 별궁이 된 직후에 실시된 성내 대수리 때 성내에 남아있던 장벽화를 재이용한 것입니다. 별궁에 걸맞은 내부 장식을 갖추기 위한 수리로 원래의 모습에서 형태를 바꾸어 재생한 장벽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	<가신대기소> 가신 대기실 장벽화 《소나무 그림》, 《화조도》
가을 기간	10 월 10 일(목)~ 12 월 8 일(일) [60 일간]	접시꽃에서 국화로 ~ <백서원> 제 1 실·제 2 실~ 1884 년(메이지 17 년) 니조성이 니조 별궁이 되자 황태자 시절의 다이쇼 천황이 혼마루 궁전을 거쳐로 삼았습니다. 백서원은 천장에 이르기까지 장식 금구가 접시꽃에서 국화 문양으로 바뀌어 황족의 어좌소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에도시대에 장군이 거쳐하는 방으로 사용된 제 1 실에는 고즈넉한 호반의 조망이 장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. 메이지시대에 마음 편안한 공간을 장식한 ‘서호도’는 새로운 주인의 마음도 치유했을 겁니다.	<백서원> 제 1 실·제 2 실 장벽화 《서호도》
겨울 기간	12 월 23 일(월)~ 2025 년 2 월 23 일 (일·공휴일) *12 월 29 일~31 일은 휴관 [60 일간]	고쇼에서 온 장벽화 ~ <대형실> · <흑서원> 장식실~ <대형실> 과 <흑서원> 의 장식실에는 교토 고쇼에서 온 장벽화가 있습니다. 이 장벽화의 일부는 원래 18 세기 초에 고쇼를 조영할 때 지어진 히메미야 궁전에 그려진 것이었는데 별궁 시대에 앞서 언급한 2 개의 장식실에 전용되었습니다. 와카의 제재인 다쓰타가와 강이나 무사시노 평야, 와카의 신을 모시는 스미요시 신사나 와카노우라를 그린 이 장벽화들은 고쇼의 와카 문화 양상을 전함과 동시에 고쇼와 니조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.	<대형실> 장식실 장벽화 《다쓰타 풍속도》, 《무사시노 그림》, <흑서원> 장식실 장벽화 《명소 풍속도》, 《추초도》, 《소나무 버드나무 백로 그림》